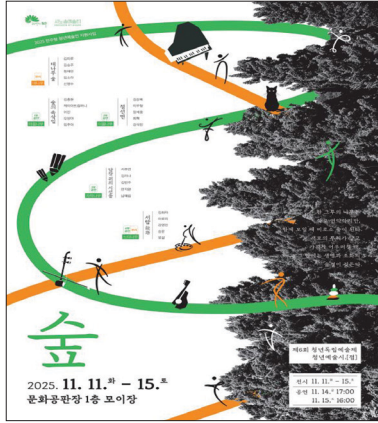


제6회 청년독립예술제 '숲' 개최

전주시, 11~15일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모이장' 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참여 25팀 성과 공유

다양한 장르의 전주시 청년예술가들이 협업해 만들어진 창작 작품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1층 '모이장'에서 올해 전주형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인 '전주청년예술시[집]'에 참여한 25팀 26인의 청년예술가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제6회 청년독립예술제'를 개최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활동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인 '2025년 청년예술시[집]'에 참여할 청년예술인 25팀(26인)을 선발해 그동안 △예술로 더하기(예술캠프) △예술로 만남(멘토링, 워크숍) △예술로 창작(그룹창작활동) △예술로 연대(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제6회 청년독립예술제'는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작품 전시와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음악과 무용,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 예술가들은 협업을 통해 '숲'이라는 주제를 예술적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예술가들은 5그룹으로 나뉘어 △점선면 △대나무 숲 △서탑(鎗塔) △숲의 속삭임 △담장 위의 시선들의 5가지 주제로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시는 이번 예술제를 통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예술적 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6회 청년독립예술제 포스터

/권희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11)

장원을 해버렸다!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앞으로 이놈이 커서 제 장구를 물려 받을 것입니다요, 상쇠어른.” 강병도가 남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명희도 당골래를 받을 것입니다요, 허허허.” 박규환도 명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 우리 고창 굿패의 동량들이그만이, 허허허. 건강하니 잘 크래이.” 상쇠 어른은 주머니에서 10원 지폐를 꺼내 남준과 명희에게 두 장씩 나눠줬다. “아이고 어르신, 너무 많습디다요.” 강병도가 얼른 손을 내저었으며 말했다. “아니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래, 허허허.” 남준과 명희는 상쇠 어른에게 얼른 허리를 숙이고 감사합디다를 외쳤다.



봄이 막 무르익어가던 무렵, 서울을 다녀온 남준의 아버지 강병도가 보자기에 싸인 장구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맞이하려 방에서 나온 남준과 남주에게 소리쳤다. “이 아버지 굿패가 말이다. 장원을 해버렸다! 장원을 해버렸다!” 방금 당골래 손님을 보내고 측간에 다녀오던 신동택이 입을 딱 벌리고 말을 잊지 못했다. “뭐라고요? 장원이라고요!” “그래, 우리 패가 특등상을 타버렸다니까!”

“정말요, 아버지!” 아버지 강병도는 전북 대표팀의 구성원이 되어 서울 창경원에서 열린 전국농악대회에 출전했던 것이다. “도 대표팀에 발탁된 것도 자랑할 일인데, 서울에 가서 특등상을 받아버렸다고요?” “와, 우리 아버지 최고!” 자신이 전국대회에서 특등상을 받은 양남준은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좋았다. 전국대회에 나가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아닌 자신의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 밑에서 굿을 배운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게다가 말이야, 전라북도 소속 굿패 사람들 중에 이곳 고창사람이 반절이나 되었다니까, 글썽.” “와야, 정말 대단하네요.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네요, 정말.” “우리 고창 굿이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허허허.” 강병도는 일부러 턱을 하늘 높이 딱 쳐들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너털웃음을 웃었다.

“아 참내,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 연기때에 가서 물어보라고, 방금 요 앞에서 규환이랑 헤어졌으니까.” “와, 우리 아버지 최고!” 자신이 전국대회에서 특등상을 받은 양남준은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좋았다. 전국대회에 나가 큰 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아닌 자신의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 밑에서 굿을 배운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게다가 말이야, 전라북도 소속 굿패 사람들 중에 이곳 고창사람이 반절이나 되었다니까, 글썽.” “와야, 정말 대단하네요. 경사도 이런 경사가 없네요, 정말.” “우리 고창 굿이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허허허.” 강병도는 일부러 턱을 하늘 높이 딱 쳐들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너털웃음을 웃었다.

아동권리 증진 위한 공동포럼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 정책방안 논의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7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23일 세 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포럼에는 유기용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최현영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단장, 조막래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참석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전북 지역 아동권리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아



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먼저, 유기용 관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내 아동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권리 침해 경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활동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조막래 연구위원은 전북지역의 아동 놀이여건을 진단하고 양육자들의 놀이인식과 정책 수요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아동 중심의 놀 권리 증진, 사회적 포용 실현을 위해 일상적 놀이 접근성 강화와 놀이 공공성 강화, 놀이 인식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현영 단장은 최근 돌봄기관에서 증가하고 있는 느린학습자(Slow Learner)의 발달특성과 종사자의 지원경험을 분석하고, 느린학습자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 전문인력 확보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아동권리 현황과 학계 전문가들이 각각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전정희 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아동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나아가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다담(茶談)'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건축가 전해갑이 이야기 손님으로 초청되어, '문화가 답이다'를 주제로 예술과 공간, 그리고 삶에 대한 철학을 나눈다. 전해갑은 전북 원주군 소양면의 '이원고택'과 '오스갤러리' 대표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을 디렉팅한 건축가이자 갤러리스트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1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 전화(063-620-2329)로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한복문화창작소, '한복 UP' 워크숍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한복문화창작소 주관으로 '한복 UP'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6~14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한복 UP'은 한복의 역사와 현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리다. 예비 한복 창작자, 청년 디자이너, 시민 등 한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복 산업의 실무·창작·브랜딩을 아우르는 실질적 내용을 다룬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복과 산업 △한복 브랜

딩 △창작과 디자인 등 세 가지 주제로 한복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폭넓게 조망한다. 강연에는 한복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복 UP'은 한복 산업 종사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장 확대 전략과 한복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워크숍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주문화팀(063-281-1587)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